

광복 74주년 맞아 더욱 빛난 ‘무궁화 고장 홍천’

광복 74주년을 맞아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이후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보리울 마을은 가히 무궁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1863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서 남궁억 선생은 서재필·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고종의 영어 통역관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철곡부사, 내부토목국장, 선유사, 독립협회 총무, 황성신문창간사장, 대한협회회장, 성주목사, 양양군수, YMCA이사, 관동학회회장, 배화학당교사, 상동청년야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여섯 차례의 옥고를 겪었다.

독립 운동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이었던 한서 남궁억 선생은 1918년 이 마을로 낙향해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짓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힘썼다.

이곳에서만 30만 주의 무궁화 묘목을 길러 보급하였으며, 1백여 곡의 구국의 노래와 역사책을 집필하여 겨레의 영혼을 일깨우는데 힘썼다. 그러나 1933년 무궁화 십자당 사건으로 일곱 번째 옥고의 후유증으로 1939년 4월 5일 77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에도 의연히 견디며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실현하고자 한 것은 무궁화 정신이다. 말살되어 가는 무궁화를 살리는 길이 꺼져가는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 생각했기에 남궁억 선생의 항일 정신은 무궁화를 통해 표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서 남궁억 선생 일제 강점기 서면서 묘목생산 전국 보급 무궁화 수목원·무궁화 공원 조성, 나라꽃 무궁화 축제 개최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한서 남궁억 기념관의 남궁억 선생 동상. 선생은 일제 강점기 나라꽃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에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사진 왼쪽) 국내 처음으로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된 홍천무궁화 수목원의 조형물. (사진 오른쪽)

홍천군의 무궁화 관련 장소 및 축제	
한서남궁억기념관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가면 일제 강점 시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한 남궁억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과 예배당 및 묘소(한서초등학교 뒤 유리봉)가 있다. 기념관에는 남궁억 선생의 약력 및 업적에 대한 자료와 사진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며, 전시실 옆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던 예배당을 복원해 놓았다.
한서남궁억묘역	기념관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한서초등학교 뒷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역 입구 돌계단 오른쪽에 한서남궁억선생묘역정화기념비(翰西南宮憶先生墓域淨化記念碑)가 서 있다.
홍천무궁화수목원	국내 최초로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한 수목원으로서 2017년 7월 21일 공립수목원으로 정식등록 되었다. 무궁화를 보존하고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수목원으로 한서 남궁억 광장, 무궁화 조형물, 무궁화 품종원, 무궁화 미로원 등 무궁화를 소재로 한 테마원 뿐만 아니라 16개의 주제원을 비롯한 무궁화누리길(숲속 산책로), 온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 위치 :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937-12 · 식물보유 현황(2017.7 기준) · 총 보유식물 : 1,072종(14만본) · 무궁화 : 83종(7,340본)
무궁화공원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를 널리 보급한 한서 남궁억을 기념하여 세운 공원이다. 공원 안에 남궁억의 시비와 군민헌장기념비, 충훈탑, 3·1만세탑, 6·25전쟁 홍천지구전투 전적비, 전국회부위원장 동은 이재학기념비, 반공희생자위령탑 등이 있다. 입장료는 없으며 홍천군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향토애와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찾아가려면 홍천읍에서 공원행 시내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간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홍천)축제	산림청과 홍천군에서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1년부터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 축제명 : 나라꽃 무궁화 전국(홍천)축제 · 개최장소 : 홍천무궁화수목원 · 목적 및 기본방향 - 나라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무궁화의 위상 강화 - 국민 생활 속에서 국가상징인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기회 마련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4 - 경로당 탐방 시리즈

05 - 스포츠 및 행사
게이트볼 시리즈

06 - 문화행사

07 - 자원봉사단체 소개
08 - 독자칼럼



“배우는 기쁨, 글로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대회에서 수상한 정필남·이귀례 어르신이 자월스님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열린반 정필남·이귀례 어르신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서 장려상, 늘배움상 수상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열린반 수강생 어르신 2명이 (사)한국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5회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편지쓰기)대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대회’는 백일장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진작 및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추진되는 전국대회로 이번 대회는 총 5천955명이 대회에 응모하여 최종 913명을 수상하였다.

이번 백일장에서 ‘딸이 내게 준 행복’이라는 편

지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에 홍천으로 이사를 와서 딸의 권유로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글로 장려상을 수상한 정필남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지금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쁘고 마음이 흡족하다. 홍천으로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온 후로 좋은 일만 생긴 것 같고 김구옥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만의 비밀’이라는 편지로 늘배움상을 수상한



◇정필남 어르신 작품

◇이귀례 어르신 작품

이귀례 어르신은 “한글을 몰라 가족들에게도 숨겨 놓았던 나만의 비밀이 사라져 너무 행복하다. 수업시간에 난생 처음 그린 그림으로 화가라고 칭찬 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그림이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너무 기쁘다. 김구옥 선생님과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열린반에서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을 진행하는데 바쁜 일상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젊은 학생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고 한글 공부를 통해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는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글을 통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장영아 사회복지사

춘천보호관찰소와 재가복지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2019년 춘천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상반기동안 총 일곱 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홍천 관내 지역에서 춘천 보호관찰소 홍석표 계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씀해주셨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가복지 대상자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웃에 주거 환경이 위험하거나 열악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손민지 사회복지사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동면 수타사

100대 명산 공작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수타사 전경(사진 왼쪽)과 생태숲공원에 조성된 연지.

보물 745호 월인석보, 수령 500년된 주목 자랑 생태숲 공원 따라 조성된 산소길 관광객에 인기

휴가철 막바지에 계곡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 '홍천 9경' 중의 하나로서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공작산 수타사를 찾았다.

공작산은 해발 887m로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홍천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며, 산세가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암봉과 노송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산이다. 또한 홍천읍에서 바라보면 거인이 하늘을 향해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의 물,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기암절벽과 분재모양의 노송 군락, 눈 덮인 겨울산도 일품이다.

또한 한국 100대 명산 공작산 끝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수타사는 신라 33대 성덕왕 7년(서기 708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대적광전 팔작지붕과 1670년 만든 동종, 고려후기에 세워진 3층 석탑이 보존되어 있고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를 비롯한 대적광전, 범종, 후불탱화, 홍우당부도 등 수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명승지로서 최고 고찰이다.

홍천 읍내에서 차로 10여km를 달려가니 울창한 송림과 시원한 계곡의 힐링 명소를 만날 수 있었다. 수타사 주차장에 내려 숲길을 지나 수타교 바로 앞에 솔방울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 자세히 보니 '홍천 잣'이라고 씌어져 있어 잣이 많이 나는 지역이란 걸 새삼 깨달았다. 수타사와 생태숲 교육관, 용담의 세 갈래 길이 있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 수타사 방향으로 먼저 발길을 옮겼다.

소나무 숲을 지나 사천왕문인 봉황문 앞에 서면 흥회루 기둥 사이로 절 마당과 대적광전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이채롭다. 대적광전(강원유형문화재



17)은 수타사의 중심 법당으로 내부 장식이 정교하고 아름답다.

대적광전 앞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청수를 올려놓는 석조물이 눈길을 끌었다.

심우산방 옆에는 강원도 보호수 제166호로 지정된 수령 5백년의 주목(朱木) 한 그루가 있다. 이 주목은 1568년에 사찰 이전을 관장하던 노스님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은 것이 자라난 것이라고 하며, 나무에 스님의 열이 깃들여 있어 귀신이나 잡귀로부터 수타사를 지킨다는 설화가 있다.

돌담 밑에는 꽃이 필 때 잎이 없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아 서로 생각만 하고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연분홍빛 상사화가 소복히 피어 있었다. 8월 중·하순에 피는 상사화는 주로 사찰이나 암자에서 많이 재배했다.

상사화 줄기에 방부제 성분이 있어, 탕화나 불경의 부패 방지를 위해 이를 염료와 제분용 접착제에 섞어 사용했기 때문이란단다.

절 옆으로 돌아가니 연지에는 연잎 사이로 간간히 분홍 연꽃송이가 숨어 있고 연못 사이로 길게 놓여 있는 다리 위에서 정다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연인들이 눈에 띄었다.

수타사를 둘러본 뒤에는 공작산 생태숲으로 들어가 쉼터, 출렁다리, 용담으로 이어지는 산소길을 걸어보았다. 이름처럼 청량한 공기가 가득한 신선이 거닌다는 산소길을 걷노라면 호흡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통나무를 파서 만든 여물통을 강원도 말로 '강'이라 하는데 계곡이 강처럼 생겼다고 강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출렁다리를 건너 수타사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에 용이 승천했다는 용담이 보인다. 용담은 명주실 한 울타리를 풀어 놓어도 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곳을 소(沼)라 하며, 작명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소 바로 옆에는 박쥐굴이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메워져 평범한 소(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취 향기가 산기슭에 가득하다. 취의 꽃말은 사랑의 향기, 그 향기가 막바지 여름더위를 조금은 진정시키는 것 같다.

3시간 여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숲길을 돌아 내려오니 허기가 느껴졌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행은 하산 길에 저녁을 먹기로 하여, 올라갈 때 눈여겨 보아둔 맛집을 향해 노을빛 구름을 감고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세찬 물줄기에 가슴까지 시원했던 기억으로 여름의 끝자락을 장식하며, 듽성듬성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성큼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풍이 곱게 물들 때쯤엔 연분홍 그리움으로 다시 핀 상사화 시 한편 읊조리며 수타사의 길목에서 또 서성일 것만 같다.

강원도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73(덕치리 9)
수타사 033-436-6611



조하경 기자

연 2회 국내여행하며 67명 회원 친목·화합 다져

약수터, 걷는 길, 실내게이트볼장 등 인접 생활 편리
경로당 마을 외진곳 위치 이용 불편 이전 신축 희망

홍천읍의 희망3리는 13개 반 540가구로 형성된 홍천읍의 대표적인 일반주택 밀집지역이다.

박치옥(81) 노인회장은 '주민 대다수가 직장인이며 홍천군의 일반적인 마을과 달리 30~40대와 60대 이상 노인 주민의 인구비가 5:5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마을이장도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라며 지승현(52) 이장을 소개해 주었다.

50대 초반의 젊은 이장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은 도시형 마을로 농사를 하지 않는 주민이 많아 농촌마을 사업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형 마을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고 있으며 마을의 유일한 시설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로당의 최고령 장수어르신은 87세 우영희 어르신이고 남자는 박치옥 회장이 제일 연장자라고 한다.

박치옥 회장은 전임회장께서 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지난 6월 6일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아직 업무 파악 등이 미흡하지만 임기 4년의 노인회장직을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에 약수터가 2개소에 있어 노인회 회원 및 주민들이 약수물을 떠다 식수로 이용하여 물값을 절약하고 운동도 하며 약수터에서 만난 주민간에 자연스럽게 환담도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은 시설이라고 자랑한다.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이 시설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기자가 지금까지 취재한 여러 마을들도 많은 돈을 들여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놓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대안으로 몇 개의 이웃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절감된 시설공사비 등을 노인건강에 필요한 안마기, 온열기,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등을 설치해준다면 주민건강 및 체력 증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게이트볼장 이용률도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용률이 적은 게이트볼장을 위와 같은 방안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홍천군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비용을 더 요긴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희망3리에는 홍천읍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어 여유 있는 시간에 걷는 길을 산책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걷는 길 입구에는 홍천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주민 및 홍천군민들이 풋살경기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게이트볼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위쪽에는 경찰 충훈탑이 건립되어 있다고 한다. 경찰 충훈탑은 6.25참전 전사 경찰들을 기리는 충훈탑으로 생활체육공원과 더불어 마을의 자랑 거리라고 한다.



◇희망3리에 위치한 홍천읍 걷는 길 안내도

또한 마을뒷산에 산성의 형태가 남아 있지만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산성이 복원되어 마을은 물론 홍천군의 문화유적으로 자리매김 되어 관광자원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희망3리 경로당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일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에 네 분이 참가하고 한글 공부방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무관하게 1년 365일 경로당을 개방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당회원은 현재 67명이며 여자회원이 40명으로 남자회원보다 많고 기금이 약 400만원 이다.

행사로써는 정월 대보름에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봄, 가을로 각 1회씩 버스를 빌려 국내의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한다.

노인회 가입비는 1만원이고 연회비가 2만원으로 65세 이상 된 주민들의 많은 가입을 바라고 있다. 회원 확대를 위해 장영섭 부회장(52년생)과 이재섭 총무(45년생)가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희망3리 경로당 회원들.

지승현 이장과 박치옥 회장 두 분 공히 희망3리의 애로사항 및 숙원사업을 밝힌다. 마을 경로당 위치가 마을과 동떨어진 외곽에 있어 우선 이용에 불편하고 마을회관이 별도로 없어 경로당은 마을회의 등을 진행하는 마을의 유일한 공동시설이고 타 마을에 비해 마을인구가 2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고 있다며 마을중간지점로의 이전을 강력히 원한다.

현재의 경로당은 마을에서 동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 회원들 및 마을주민이 이용하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전 군수님께도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마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한다. 특히 경로당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바로 앞이 2차선 도로여서 겨울에 눈이 내릴 때는 너무 위험하다.

홍천군 재정이 어렵겠지만 마을회관도 별도로 없으니 마을의 유일한 공동시설인 경로당만큼은 마을중간지점으로 이전해 노인 회원들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며 마을 숙원사업인 만큼 실버신문에 꼭 게재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홍천군 전체 경로당 탐방취재를 다니다 보니 각 마을마다 애로사항 및 숙원사업들을 말씀한다. 기자로서는 우리 홍천군이 전국 유수의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첨단 산업시설등도 많이 생기며 더불어 일자리도 많이 생겨 궁극적으로 군재정이 좋아져서 각 마을 경로당의 숙원사업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스포츠 및 행사

수상레포츠 무료체험 행사

구명조끼 비치 홍천강변 물놀이 관광객 사고 예방

한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물놀이 행사

안전 파수꾼 재난구조 대원 현장 배치



◇ 홍천군은 피서철을 맞아 홍천강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6000벌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 호평을 받았다.

홍천군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홍천강변 화촌면 대진교, 서면, 내면 등 홍천강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어 많은 내방객을 포함하여 밀려오는 인파를 사고 없이 수용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요원을 위험한 지역마다 한곳에 2명씩 10개 읍·면에 132명을 배치하였으며 가장 위험성이 많은 서면 유원지와 내면 일원 그리고 화촌면 대진교 다리에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구명조끼 또한 강변에 6,000벌을 비치하여 무상으로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물놀이에 꼭 필요한 구조 장비 설치

물놀이 구조하는 장비로서는 구명환과 구명 로프로 되어 있으며 물속에 빠져 인명구조를 요청할때 가까운 거리에서 제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구명환은 요청하는 쪽으로 던져 구명환을 잡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또한 구명 로프는 20m-30m 거리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익수자 쪽으로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로프를 던져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 홍천강변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진 재난구조단 대원들. 이들은 자연 정화활동도 정기적을 펼쳐 칭송을 받고 있다.

홍천군에서는 재난구조단도 활용하여 단장(류기종) 사무국장(강명원)과 함께 대원 19명은 군 생활에서는 특전사요원으로 수중임무에 재난구조의 임무를 띄고 또한 산악대장으로도 고도의 실전을 쌓은 대원들이며 몇몇 대원은 심폐소생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홍천강 화촌면 대진교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삼북대위와 휴가도 반납하고 모터 보트를 이용해 물놀이 이용객들에 안전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 익수자가 발생시에는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인명을 구조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재난구조단(비영리단체)은 200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홍천 관내에 모든 일을 책임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홍천강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홍천강을 청정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 홍천군 지역민에게 많은 찬사를 받으며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오늘도 무사고를 바라며 끝으로 재난구조대원들은 한 목소리로 오래된 무전기과 모터보트의 성능이 좀더 나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열악한 대원들의 열과 성의, 책임감만으로는 사명을 다하기가 부족하므로 홍천군의 지원이 함께 하면 더욱 더 용기와 힘을 내어 홍천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사고 없는 내일과 2020년을 기약하며 끝을 맺었다.

안태수 기자



게이트볼 시리즈

북방면 능평게이트볼장, 매월 정기전 개최 회원 경기력 향상



능평게이트볼장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 18명중 남8명, 여10명이다. 회장 김전학, 총무 조주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2시에는 정기전이 열린다.

모범 게이트볼장으로 홍천 게이트 연합회장 김주용씨도 능평게이트볼장 출신이다. 능평 게이트볼장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능평에 기념비가 세워

져 있으며 금년에는 깃발축제를 10월 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능평게이트볼장이 있는 마을은 능평 문화 마을이다. 홍천 무궁화 수목원이 조성된 마을이다.

SK본사에서 자매결연 맺을 곳을 물색하던 중 홍천 종말처리장이 있는 북방 소매곡리를 가스공급을 위해 왕래하다가 능평리를 발견해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의 농산물을 고가로 매입하여 SK본사 앞에서 매각하여 농촌의 도움을 준다고 능평리 이장 김철호씨는 말하였다.

이광명 기자



생명체 소멸과 덧없음 표현한 작품에 발길 머물러

보이는 감각의 예술 세계

홍천미술관에서는 다소 이색적이고 생경한 장르의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일반의 전시보다 전시의 기간도 길었다. 전시 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간 열리고 있었다. 간간이 전시실의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중 “숨1”에 한참을 눈길이 머물렀다. 작가의 설명에 따라 “보여주는 감각”의 작품성과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숨1”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오버랩시켜 감동을 주고 있었다. 오래된 회중시계와 물결의 이미지를 인화하여 그 인화지 위에 촬영하는 기법으로 물결의 흐름과 멈춰진 시간의 이미지를 대비시켰다고 한다. 흐르다가 멈춰진 물은 시간의 정지를 의미하고 그 위에 회중시계를 겹쳐진 장면으로 보여줌으로써 멈춰진 듯한 시간은 소멸을 의미하므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에 작가는 초점을 맞추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흐르는 물처럼 흐르다가 정지된 물과 회중시계처럼 시간 속에 덧없음을 잘 나타낸 작품이었다.

간결하면서도 명징하게 생명체의 소멸과 덧없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보이는 감각의 예술성

모든 예술의 감상은 사람의 오감 속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 시각 예술은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의 5감 중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시각에 기대어 눈에 보이지 않은 시간을 가시화하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직접보고 만지는 것처럼 형상화할 수 있다.

그러한 감각적인 것이 뇌수를 타고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맛을 음미하고 냄새를 맡아 볼 수는 없지만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등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두, 세 가지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보이는 감각전》은 이러한 다양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작품을 보이는 시간, 시각적 촉각성, 미각체험, 마술적 리얼리티의 네 가지로 구성하여 선보인다.



◇홍천미술관에 전시된 ‘숨1’ 작품. 보여주는 감각의 작품성과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작가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더해져
시각적으로 반영된 예술 작품은
우리가 무언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일상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보이는 시간의 예술성

보이는 시간은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시간을 여러 가지의 현상을 통해 가시화하여 시간성을 드러내고 시간의 흐름과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을 선보였다. 시간의 촉각성에는 소재와 기법에 의해 촉각적 감각에 두드러진 작품을 보여준다. 미각체험에서는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식을 소재로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주제로 마술적 리얼리티에서는 예술작품이 보여주는 첫 번째 감각적인 시

간으로 들어가 시각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을 통해 본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되묻고, 학습하고, 경험화된 작품 감상이 만든 거와 관념적인 시각에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가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더해져서 시각적으로 반영된 예술작품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일상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주어졌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익숙하게 존재했던 우리가 지닌 감각을 일깨우고 새롭게 주변을 돌아보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보이는 감각의 전시는 나 역시 처음이며 어디서나 체험하기 힘든 특이한 장르였다.

이러한 독특하고 이색적인 전시회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여 다양한 문화적인 향수를 공유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봤다.

김정현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홍천군 새마을부녀회

10개 읍면서 4800여명 회원 활동 활발



◇홍천군 새마을부녀회는 비공식회원까지 합하면 6000여명이 활동하는 거대 조직이다. 사진은 출산용품 나누기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

1970년 창립 조직 탄탄... 비공식회원 1000명 김장봉사서 체육대회까지 없으면 안되는 단체

홍천군 새마을 부녀회는 읍, 면 10개 단체에 4,8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봉사단체다.

비공식회원 1,000여 명까지 6,000명가량 된다고 한다. 마을마다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부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1970년에 창립되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새마을운동은 부녀회를 조직하였고 근면, 자조, 협동의 자세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낙후되었던 농촌개발을 우선적으로 하였지만 후에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번지면서 총체적 국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뚫뚫

지금 중년의 세대들은 다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이다. 그러나 지금도 새마을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너무 익숙하고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큰 단체를 2년째 이끌어 오고 있는 박순옥 회장님을 만나서 새마을 봉사단체의 정신과 봉사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름 옷놀이행사, 어버이날 어르신 섬기기, 복날 음식 대접, 대동회 등은 회원들의 봉사로 진행된다.

김장 6000포기 담가 이웃 전달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10개 읍, 면에

6,000포기 정도의 김장을 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20Kg씩을 포장하여 나누는 일을 한다.

또 올해 봄 김장김치가 떨어질 즈음에 열무김치며 반찬 4가지를 만들어 1,000 세트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옥수수축제장 등서 배식 봉사

축제 전날부터 준비하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어 판매를 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뒷정리정리까지 3~4일 봉사를 하게 된다. 지치고 힘들지만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봉사 정신, 새마을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며 주위의 격려와 관심도 큰 위안이 된다고 했다.

아기 출산 선물은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에 이불을 만들어 나누는 새마을 사업이다.

강원도 다문화 가요제는 홍천지역의 다문화가수를 초빙하여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격려한다.

동네 풀 뽑기, 하천 정비는 주민들과 협력하고 새마을회원이 주축이 되어 앞장서서 일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봉사는 읍, 면별로 4~8명씩 봉사에 참여하여 돕는다.

그 밖의 독거노인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의 가정에 집수리나 도배 장판일을 도와주는 것까지 새마을 회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군내의 행사와 읍·면의 행사에도 새마을 회원의 도움 없이 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또 한마음 체육대회는 새마을지도자 모임이다. 리·면·군 임원(1,200명 이상)들의 단합대회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다.

전 회원들이 함께 모이려 해도 그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체계는 오십년 가까이 다져온 새마을정신과 튼튼한 조직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박순옥 회장은 처음 부녀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군 회장을 맡기까지 27년간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봉사해 왔다. 큰 행사를 진행하고 독려하면서 힘들어도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 하나로 견디었다.

또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올 수 있었음은 읍과 면의 회장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마워했다. 회원들도 이런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홍천군이 발전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하고 군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걸려 있는 새마을 깃발을 보면 자부심과 감동을 느낀다고 한다.

새마을 봉사단체는 공무원만으로 할 수 없는 마을 정비 사업과 봉사활동을 주민들의 참여로 자체적으로 활동한다. 이 운동은 박정희대통령이 가나 안농군학교를 방문했을 때 받은 영감으로 그 정신을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이뤄낸 사업이라고 한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운동 과정과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지금도 미개발 국가들에서 이런 정신과 운동을 배우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와서 배워가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배운 이 실용정신을 자기 나라에 접목하여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하니 우리 새마을운동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순화 기자

독자칼럼



석도익

소설가

개도 안 먹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며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가 좋다고들 한다.

돈으로 안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돈으로 충성하고, 돈으로 효도하고, 돈으로 사랑도하고, 돈으로 죄도 면하고,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니 과히 황금만능의 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현실에 모든 물질 영적가치까지 돈으로 평가하고 셈하는 시대다.

단돈 몇 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유명연예인(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42)의 다리 보험금은 10억 달러(약 1조 715억원)란다.

이러하듯이 빈부를 가르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있는 돈의 역사도 깊다.

돈을 만든 지폐는 단지 종이이고, 주화는 금속일 뿐이지만, 그 가치는 끝이 없다. 돈의 역사는 곧 거래의 역사이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필요한 다른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쓰고 남은 물건들을 서로 바꾸었다.

이러한 물물교환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 사실 이 제도는 거래가 자유로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물품의 가치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를 공평하게

(子母錢)이라는 철전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마한에서 기원전 109년에 동전을 처음 주조 하였으나 삼국 시대까지는 금속 주화 보다는 쌀과 베를 중심으로 한 곡화(穀貨), 미화(米貨), 포화(布貨) 등이 널리 쓰였다. 본격적인 돈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때는 고려시대 부터이다. 또한 화폐를 ‘돈’이라 부르게 된 데에는 ‘돌고 돈다.’는 데서 ‘돈’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 둘째는 엽전 열 닢을 한 돈으로 부른 화폐 단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그리고 약이나

존경하지는 않는다. 특히, 돈을 벌 어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구두쇠·자린고비·수전노 등은 비난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해서, ‘돈은 더럽게 벌어도 깨끗이 써라’,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라고 한다.

돈에는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일하고 노력한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의 가치만큼 써야 된다. 노력도 일도하지 않고 얻어진 돈이라든가 일한 대가보다 더 많이 받은 돈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서 그 돈을 가치 없이 쓰기 때문에 낭비일 뿐이다. 흘러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한 것이 경제의 원리다.

나라에서 관리를 뽑고자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재산축적 부분에 논란을 보게 되는데, 이토록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일 하나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가 그러하니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교훈도 여럿 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교훈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최영(崔瑩)에게 남겼다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돈 이야기

하기위 해서 다양한 대체 물건들-보리, 소금, 구슬, 금, 은 등-이 물품을 거래할 때 지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돈(화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초기에 사람들이 돈으로 사용한 것은 소금을 비롯하여 조개껍질, 가죽, 옷감, 동물 뼈 등의 입거나 먹을 수 있는 물품이었다.

특히 조개껍질은 화려함과 견고성 때문에 기원전 3천년경 부터 돈으로 쓰여 왔고 돈과 관련된 한자말에는 조개 패(貝)자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자조선에서 자모전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중량단위인 ‘돈중’에서 나왔다는 설이다.

돈은 한글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돈’이라고 표기되었고, 어형의 변화가 없었다.

‘돈 놓고 돈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노력을 한다고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밀천이 있어야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천을 굴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생겨날 수 있다.

‘돈에 침 뱉을 놈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셀 때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센다. 모두가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을

독자칼럼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그렇게도 무덤덤한 찔통더위가 물러가며 조석으로 싸늘한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소리도 잦아들고, 어느새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렁인다. 가을의 풍요로움은 여름내 땀 흘린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추석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농부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아닌 듯싶다. 지난해를 더 위에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기에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추석 차례 상 준비하는 주부들도 시장바구니 채우기가 망설여진다. 너무나 많이 오른 농산물 가격 때문이다. 쌀값도 예년보다 오르고 있다.

그러나 팔월 한가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큰 명절임은 분명하다. 가족 친지가 만나고 정담을 나누는 명절인 것이다.

우리 겨레의 가장 큰 명절 8월 한가위는 추석, 가배절, 중추절, 가위, 가윗날로 불린다. 하지만 요즈음은 이 가운데서 추석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듯싶다.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바람직할까 라는 물음을 던져보

으로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달이라는 뜻인 것이다.

추석보다는 신라시대부터 오랫동안 쓰인 토박이 말인 한가위를 쓰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한가윗날 음식으로는 송편을 꼽을 수 있다. 온 식구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송편을 빚는 모습은 정감이 넘쳤다. 미혼인 여성은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시집가서 예쁜 딸을 낳는다는 어른들의 덕담

눈총을 받는다. 한가위 당일 차례는 종가나 사당에서 아침 일찍 조상님께서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된다. 햅쌀로 뉘(밥)를 짓고 술을 빚어 송편과 더불어 차례를 지내게 된다. 오곡백과의 풍요로움을 수확하기 전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회식으로는 추수감사절 예배의식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한 가정으로서는 뜻깊고 애절한 명절이 될 것이다.

또한 제3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고조돼 있다. 올 한가위도 각 지방마다 즐거운 민속놀이가 행하여질 것이다. 말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70-80%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명절, 올해도 어김없이 귀성길, 귀경길 정체는 이루어질 것이다.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돌아오는 귀경길에는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신 자식사랑의 보따리가 실릴 것이다. 자녀들이여 부모님 그 사랑 삶의 활력소로 삼고 하는 일터에서 땀 흘리며 부모사랑에 보답했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면 먼저 중국에서는 가을을 셋으로 나눠 음력 7월을 맹추(孟秋), 8월을 중추(中秋), 9월은 계추(季秋)라고 불렀는데 그에 따라 8월 보름을 중추라고 한 것이다. 또한 추석이란 말은 5세기 송나라 학자 배인의 저서 사기집해(史記集解)의 ‘추석월(秋夕月)’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추석월의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것

도 함께 했다. 잘 빚은 송편은 향긋한 솔잎을 시루에 깔고 찌내 차례상에 올렸다. 8월 한가위 음식으로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신도주, 햅쌀송편, 박나물, 토란국 등 여러 음식을 장만하여 제상에 올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분주한 한가위를 준비하는 마음은 바쁘다. 우선 성묘에 앞서 조상 묘소 별초를 해야 한다. 이것 또한 묘소가 많은 가정은 연례행사다. 옛 어른들은 별초를 자손으로서 효성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왔다. 별초를 하지 않고 넘기면 불효자라고 어른들의